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창건 70돌 경축 청봉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창건 70돌 경축 청봉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인민극장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예술공연을 보게 된 관람자들의 무한한 행복과 기쁨으로 하여 걱정의 대하를 이루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관람석에 나오시였다.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면서 부강번영하는 이 땅위에 21세기의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열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이 답례하시였다.

김기남동지, 최봉해동지, 김양진동지, 조용원동지와 모란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왕재산예술단의 창작가, 예술인들, 평양시내 예술인들이 공연을 보았다.

출연자들은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 동지의 당으로 존엄높은 우리 당에 대한 찬가들을 새롭게 특색있게 형상하여 환희로운 공연무대에 펼쳐놓았다.

서곡 《당을 노래하노라》로 시작된 공

연무대에는 여성 2중창과 방창 《장군님 생각》, 트럼페트를 위한 경음악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 여성중창 《사랑하노라》, 《조선의 모습》, 경음악 《사회주의 지킴이》, 여성 4중창과 방창 《영원한 메아리》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렸다.

출연자들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 창건하시고 명도하여오신 조선로동당의 품속에서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피어나는 영광스러운 로동당시대를 감명깊은 예술적 화폭으로 펼쳐 보였다.

성스러운 붉은 기록에 마치고 낮과 붓을 아로새기고 오직 인민을 믿고 조국 땅 위에 거창한 전변의 새 역사를 펼쳐며 백송만을 아로새겨온 위대한 당,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참다운 삶의 은인, 위대한 당에 대한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심과 총성의 마음이 그대로 송가로 되어 장내에 울려 퍼졌다.

절세위인들의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조선로동당의 70년사는 위대한 청년증시사상의 력사, 청년강국을 건설한 력사임을 뜨거운 걱정속에 더듬어 보게 하는 여성중창 《우리는 혁명의 계승자》는 관람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년대와 세기를 이어 천만심장을 주체의 넓으로 높여주며 우리 인민의 삶과 행복을 더욱 활짝 꽃피우는 어머니당을 노래한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우리의 행군길》, 《어머니당의 품》, 《어머니의 목소리》, 《그대는 어머니》,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등의 곡목들을 펼친 기악과 노래편곡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는 공연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새롭게 창조형상된 여성 3중창과 방창 《당이어 그대 있기에》, 여성 3중창 《친근한 우리 원수님》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백두의 대업을 이룩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운명의 하늘로, 삶의 태양으로 모시고 따르며 오직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우리 당을 총정다해 받들어 갈 천만군민의 철석같은 신념을 잘 보여 주었다.

독특한 색채융합의 안상함과 금관악기 위주의 경음악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가수들의 맑고 개성적인 목소리, 특색있는 편곡과 연주형상으로 신비의 음악세계를 펼친 공연은 시종 관람자들의 경탄을 불러일으켰다.

주체로 빛나는 불패의 혁명적당, 인민을 위해 복무하며 천만군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위대한 우리 당의 창건자, 건설자, 명도자이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무대배경에 정중히 모셔질 때마다 열광적인 박수갈채가 터져오르고 장내는 뜨거운 격정에 휩싸였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동지당의 성스러운 혁명 위업은 필승불패이며 당의 명도가 있는 한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라는 것을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가, 백두산대국의 진군가로 높이 울린 공연은 종곡 《조선로동당 만세》, 《천리라도 만리라도》로 끝났다.

공연이 끝나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둘러러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 울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혁명의 나팔수, 사상적기수가 되어 당중앙의 의도대로 백두산의 청신한 뱃이 어리여있는 악단의 이름을 예술활동실전으로 빛내이며 주체문화예술발전에 크게 이바지해가는 청봉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의 공연성공을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청봉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앞으로도 천만의 심장을 드높은 혁명열, 투쟁열로 불타게 하는데서 맡겨진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라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지도부

